

신행수기 당선작

(본사 사장상)

어머니, 불교를

다시 믿읍시다 ② · <광>

지 글 생각하면 어리석기 짝이 없었다. 10년 만에 여러가지 질병이 온 몸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병명은 만성 부전증 신경성 위염. 대장도 신경성염이 되었고 무엇보다 더욱 나를 괴롭힌 것은 말하기 민망한 곳에 생기는 피부염증이었다. 남편과의 관계도 멀어졌다. 처음엔 두 서너 달에 한번씩 나타났으나 차츰 습관적으로 생리를 전후해 발병하는 바람에 걷기조차 불편했다. 병원에서는 신경성이나 악을 꾸준히 먹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낫는다고 했지만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봐도 우울증은 좀처럼 풀려가지 않았다. 불교에 의지하려 했지만 타종교에 심취한 어머니가 내게도 그 종교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바람에 진퇴양난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어머니가 입원하셨는데 "이제는 힘도 없어 제복(남묘호랑령교)도 못 부른것다" 하시는 것이었다. 이때가 기뻐다 싶어 "어머님, 불교를 다시 믿읍시다. 부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셔서 다른 종교를 믿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했더니 "그렇까" 하시는 것이었다. 다음날, 한마음선원을 찾아가는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차 세상을 다시 얻은 듯 했다. 그날 처음 듣게 된 법문은 '내 마음이 부처이고 나는 주인공이다. 무조건 놓아라, 믿고 맡겨라' 하는 것이었다. 그 법문은 충격적이었다. 내가 바로 부처라니! 그럼 모든 사람들이 부처가 아

리겠다. 남편과 언제든 지 사랑도 나눌 수 있게 변화된 내 몸이 참으로 신기했다. 남편은 아직 불교입문은 하지 않았지만 불심양면으로 협조를 잘해주고 있다. 부처님의 가피는 내 마음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나타났다. 어머니를 '부처로 보자' 하고 절심한 후 다시 바라본 어머니의 모습은 지난날 광망해오던 분이 아니었다. 두렵게만 느껴지던 어머니의 눈빛은 다정하다 못해 안쓰럽기까지 했고 사랑하는 마음이 절로 솟아 결혼 후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가슴에 안아 얼굴을 맞대고 쓰다듬어 드리며 '주인공, 우리 어머니도 고통에서 벗어 나게 해라' '넌 할 수 있어' 하며 관했다. 그랬더니 어머니도 진심으로 날 믿고 의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내 탓인 줄 모르고 시어머니를 속상하게 해 드렸던 지난날들을 진심으로 참회하



그림 · 이준석

'주인공' 관하며 '모두 내탓'으로 돌리니 만성질병·미움 사라져

나졌는가? 내가 부처인데 참 나를 몰라 너무 고통스러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진짜 불자가 됐다'는 환희심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다. 그 순간부터 내 마음 속에는 모든 이에 대한 원망이 사라졌고, 어려웠던 과거들이 모두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경계였음을 알게 되었다. 불쌍이란 단비는 나의 온몸을 전율케 했다. 때 일같이 들던 라디오를 불교방송으로 고정시키고 교리강좌 시리즈를 구입해 경전공부도 열심히 했다. 그날부터 내 생활도 마음과 같이 달라져 갔다.

불교는 '실천하는 종교다'라는 생각에 2년째 막연 신경성악을 복용하지 않고 주인공에게 맡겼다.

'아프게 한 것도 너니까 낫게 할 수 있는 것도 너다. 아픈 곳을 치료해라. 너의 힘은 끝대 무변하니까' 하며 관하고 또 관하다 보면 아픈 통증이 사라지곤 했다.

하루, 이틀, 한달, 두달... 나는 계속해서 관하면서 생활했고, 내게 주인공이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잘 되도록 해라, 넌 할 수 있어' 하며 관했고, 열심히 법화에 참석하며 불심을 더욱 키워 갔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에 빠져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던 일은 자연스럽게 없어졌고, 대신 즐거움으로 가득 차서 사람들만 보면 불교를 믿으려고 가르쳐 주게 됐다.

그뿐이 아니었다. 날 끈질기게 괴롭혀 살기조차 싫어지게 하던 민망스러운 곳의 염종도 사

고 또 참회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인 아들이 공부 핑계, 학원 핑계를 대며 불교를 믿지 않겠다고 해 계속 주인공에게 관했다. 3개월쯤 지난 어느 토요일 아들이 절에 가고 싶으니 데려다 달라고 했다. 그 순간 얼마나 기쁘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날로 학생부에 가입시켰는데 토요일마다 잊지 않고 잘 다니는 것이 너무도 신기하다.

또한 하늘이라도 무너질 것 같이 언제나 두렵고 무서움에 떨던 마음도 이제는 어느 곳에 있든지 많은 감성신이 나를 옹호해준다는 생각이 들어 활기차고 당당해졌다. 세탁소 일도 열심히 했다. 어쩌다 손님의 옷에 손상이 가 배상을 요구하면 전에는 억울하다는 생각에 남편과도 다투고 속이 상해 잠조차 제대로 못 잤다. 하지만 모두 나의 탓으로 돌리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내게 좋은 일이 생길 것처럼 마음이 부뚱해졌다.

'모든 것을 버려라, 그래야 원하는 것을 얻는다.' 참진리였다. 요즘들 같은 불경기도도 세탁소가 변형되어 잘 운영되는 것은 부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웃으면서 손님을 대하고 친절하게 서비스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불교를 믿게 되면서부터 나의 삶은 말할 수 없이 편안해지고 운택해진 것같이 너무 감사하다.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더욱 정진하고 공부하며 이 마음을 죽는 날까지 지키려 한다.

박윤희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1가)



<석조지장보살상 (1519년)>



<종이로 만든 여래좌상 (17세기)>



<나무로 만든 나한상 (조선 후기)>

부처님 얼굴에서 '겨레의 얼굴' 본다

■ 24일까지 인사동 가나아트 '한국인의 얼굴' 전

우리 한국인의 얼굴은 어떻게 변모해 왔을까. 미술품에 나타난 얼굴은 그 시대의 특징과 시대 정서까지 담고 있다. 따라서 고대부터 최근까지 미술품에 나타난 얼굴모습의 변천을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수 없다.

특히 불상의 상투는 그 시대 얼굴의 가장 이상적이고 대표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석굴암 본존불이 8세기 통일신라시대인의 얼굴을 대표한다면 서산야예불은 백제인 얼굴의 상징이다. 이렇게 삼국시대에서 현대까지의 불상과 동자상 그리고 현대작가들의 조소작품들을 통해 한국인

의 얼굴 1500년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인사동 가나아트 스페이스 3층과 지하 1층에서 24일까지 열리고 있는 '한국인의 얼굴: 1500년의 역사 - 전통에서 현대까지'에는 '금동 청동 종이 목조 석조 도조 등의 불상 50여점과 반가사유상에서 모티프를 얻어 재해석한 유영교씨의 '사유' 등 현대작가 작품 20여점 등 모두 70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불상들은 대부분 처음 공개되는 것으로 불상과 천진난만한 동자상들의 다양한 표정을 살펴볼 수 있다. <속>



<유영교작 '사유' (대리석 · 1993년)>

"고통받는 이 감사는 자애의 눈길 닮아"



◇ 알브리히트작 '성모자상' (부분) 브래리미술관 소장.



◇ 고려했화 '수월관음도' (부분) 하버드대 아더 새클러 박물관 소장.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수월관음도와 성모자상

대자대비로 상징되는 관세음보살과 고결함과 자애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성모마리아.

관세음보살은 여러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서 중생들을 곤란에서 구제하는 자애롭고 그지없는 어머니와 같은 보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성모마리아 역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감사하는 성스러운 모성(母性)을 상징한다.

그림 왼쪽의 수월관음도(미국 하버드대 아더 새클러 박물관 소장)는 14세기 중반경 제작된 고려불화로 유려하게 흘러내린 배일, 화려한 문양과 장식, 풍배가 지비로운 모습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알브리히트가 그린 성모자상(1340~45년 제작·브래리미술관 소장) 역시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린 부드러운 배일을 쓴 성모마리아의 차려로운 눈길

이 그윽하기만 하다. 학림 <예천 법화암 주지>

신토불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은 피부! 신선한 自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종 유해 대기속에서 지친피부를 바라보는 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선한 자연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 바쁜 일정속에서도 만족하고 싶은 자연의 美! 이제 세안·샤워하실 때 만큰은 항생제를 쓰지 않는 천연 무공해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를 사용하세요.

- 한방재료추출물 (오미자, 구기자, 갈초, 속지황, 천궁계피등)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피부에 미백효과가 있습니다.
- 99% 천연소재 사용
- 공해매연, 신성비료 인해 오염된 중금속배출 능력이 우수합니다.
- 주부습진, 여드름, 기려움증(비듬, 무좀등) 예방에도 좋습니다.
- 항균·항진균효과(antibacterial & fungal effect)가 있어 피부에 자연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며, 장기간 사용시에도 병원균들이 내성을 갖지 않습니다.

추천의글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뛰어난 첨단생물공학 기술로 정교하게 개발된 제품입니다."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과 및 오염물질들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민들에게 진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강원대학교 축산기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면
"세면비누는 미용필수품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차세대 아이디어 상품이다."
신성국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원 석 희
"오보크린은 피부에 유익한 생리활성물질에 한방재료성분을 첨가하여 만들어진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건강미용비누로서, 어느 화장품과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첨단기술력의 제품이다."



● 오보크린은 알부민푸로테인과 레시틴등의 생리활성물질 (호서대학교와 C.T.F. 연구개발팀의 공동연구 개발물)을 기본원료로 하고, 한국인의 체질에 적합한 일곱가지 한방재료 추출물들을 첨가한 천연소재의 비항생제성 피부 친화적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입니다.

● 오보크린은 피부에 감염되는 병원균들에 대해 직접·간접적인 생리작용으로 항균효과를 발휘하여 주부습진, 비듬, 무좀등을 예방하고, 피부의 자연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공해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을 피부로부터 배출시켜 항상 싱싱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첨단 생명공학적인 건강미용 비누입니다.

(주)씨·티·에프 호서대학교 호서신기술센터내